

文대통령 “정책 수단 총동원해 해운·조선산업 살리겠다”

‘바다의 날’ 기념식 기념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일 “경제 위기에서 해운과 조선산업이 시급식이라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쟁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시 새만금신시가지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해운·조선산업을 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바다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였던 2003년 이후 14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해운·조선산업은 국가경제 핵심의 한 축”이라며 “전시에는 육·해·공군에 이어 제4(軍)의 역할을 하는 안보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 기간산

“과감한 투자 해양강국 도약”...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약속

전남·경남 등 5개 시·도 ‘조선산업 위기 극복’ 공동 건의문

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정책적 고려 속에서 해운·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하겠다”며 “해운·항만·수산 기업의 신규 선박 발주, 노후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 지원, 해외항만 개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위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새 정부는 강력한 해양경쟁력과 해군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

며 “과감한 투자로 국가 해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까지 높여간다는 목표 위에서 해군 전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며 “이를 토대로 동북아 해양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평화 번영 공동체를 이루는 주춧돌을 놓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협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육지보다 5배가량 넓은 관할 수역은 물론 극지와 심해까지 빈

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선박과 인력 등 해양조사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국가 전체 연구개발(R&D)의 3% 수준에 불과한 해양수산 R&D 비중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양신재생에너지·해양바이오 같은 미래 신산업과 4차 산업혁명 등 일자리 창출의 모범답안을 바다에서 찾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며 “매립도 필요한 부분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 속도를 올리고, 신항만과 도로 등의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 새만금이 원활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전북·부산·울산·경남 등 조선산업이 밀집한 5개 시도는 이날 조선·해양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 기획재정부 등 4개 중앙 부처에 전달했다.

이번 공동 건의문에는 관공선 LNG 추진선 교체에 따른 국비 지원, 중소기업 조선소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기준 완화,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별보증 확대 등을 담았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조선업 보안 지역 먹거리산업 육성, 조선업 사업 다각화 집중 지원 등도 건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왼쪽 첫 번째)이 31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에서 열린 바다의 날 행사에 이희만 해군사관학교 연구관(오른쪽 첫 번째) 등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6개 부처 차관 인사...모두 내부 승진

기획1 고희권, 교육 박춘란, 외교2 조현, 통일 천해성, 행자 심보균, 국토2 맹성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고희권(53)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 교육부 차관에 박춘란(52)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외교부 2차관에 조현(60) 주인도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또 통일부

차관에 천해성(53)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행정자치부 차관에 심보균(56) 행자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에 맹성규(55) 전 강원도 부지사를 각각 발탁했다. 이종 고희권 차관은 해남 출신이며 조현

차관과 심보균 차관은 전북 출신이다. 운영권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이런 내용의 6개 부처 차관 인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차관인사를 단행한 것은 지난 21일 법무부 차관 인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장관 인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6개 부처의 차관을 우선 임명한 것은 차관 중심의 실무적 국정 운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장관 임명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차관 체제를 조기 구축, 국정 공백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복수 차관이 있는 부처의 경우 일단 1명만 인사를 낸 것도 부처 운영 안정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이 전날 여당 의원을 4개 부처의 수장으로 발탁한 것과 달리 이날 발표된 차관은 모두 관료 출신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문 대통령이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차관 인사를 진행하면서 후속 인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에 앞서 차관 인사를 한 이유에 대해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실무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수로 차관이 있는 부서의 경우 이반에 교체되지 않은 차관은 유임인지를 묻는 말에 “차관 인사는 추가로 계속 있을 예정”이라면서 “각 부처 상황과 장관과의 조합 등을 보면서 나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신임 차관 프로필

| 기획재정부 1차관 | 교육부 차관 | 외교부 차관 |
|---|--|---|
|  고희권 (53) |  박춘란 (52) |  조현 (60) |
| 전남 해남 전남사대부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30회 이명박 정부 기재부 성과관리심의관, 박근혜 정부 민간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기획조정실장, 아시아개발은행 이사 | 경남 고성 전주여고,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행시 33회 이명박 정부 교육부 정책기획관, 박근혜 정부 교육부 대학정책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 전북 김제 전주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프랑스 정치대학 국제정치학석사, 외시 13회 주UN대표부 대사, 이명박 정부 외교통상부 에너지지원대사, 다자외교조정관, 주 오스트리아대사관 대사, 주 인도네시아 대사 |
| 통일부 차관 | 행정자치부 차관 | 국토교통부 2차관 |
|  천해성 (53) |  심보균 (56) |  맹성규 (55) |
| 서울 영동모고, 서울대 공법학과·행정대학원 석사, 행시 30회 이명박 정부 통일부 대변인, 박근혜 정부 남북회담본부 본부장, 통일정책실장,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 전북 김제 전주교, 서울대 영어교육과·행정대학원 석사, 행시 31회 이명박 정부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 박근혜 정부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 행자부 기획조정실장 | 인천 부평고, 고려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캐나다 맥길대 법학박사, 항공대 항공운행관리과 법학박사, 행시 31회 이명박 정부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관,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교통물류실장, 강원도 부지사 |

장미정원의 젊은이들 ‘인생의 가시’를 알까



(186) 장미

“...너 먼 손으로/나는 삶을 만져 보았네/그런 가시 투성이었어//가시 투성이 삶의 온 몸을 만지며/나는 미소 지었지/이토록 가시가 많으니/곧 장미꽃이 피겠구나 라고...” <김승호 작 ‘장미와 가시’ 중에서>
장미 만발한 계절이다. 서울에서 곡성까지, 놀이동산에서 대학 캠퍼스까지 전국 곳곳에서 장미 축제 바람이다. 그 예쁜 장미꽃이 보고 싶어 람 먹고 되근길에 조선대 장미정원을 찾았다. 장미정원에 장미 반, 사람 반. ‘인생의 가시’를 알 갈 없는 젊은이들이 행복할 순간을 셀까에 담느라 여념이 없는 사이로 싱그러운 장미향이 달콤했다.

230여 종의 수만 송이 장미들이 저마다의 멋을 뽐내는 장미정원을 돌아보니 오지호의 뒤를 이어 조선대 미술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호남 구상화회의 전성기를 꽃피우게 했던 서양화가 임지순(1919~1996)의 장미 그림이 떠오른다. 화가는 이곳에 장미원이 조성되기 훨씬 오래 전 꿈꿔왔 아름답고 낭만적인 화원의 수많은 장미를 화폭 속에 일구어왔다.



임지순 작 ‘정물’

임지순의 ‘정물’(1988년 작)은 화병이 터질 듯 풍성하게 담긴 장미꽃들이 화면을 압도한다. 꽃의 원형으로서의 장미를 보여주기도 하는 듯 장미를 그렸지만 장미의 형태를 떠나 강렬한 붓질이 강조된 색채의 울림이 쟁쟁하다. 장미꽃들의 다양한 색채, 상대적으로 작은 화병이 주는 긴장감, 장미꽃 보다 더 검붉은 정열의 배경, 기품 있는 색감 등은 그림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장미꽃 한 아름 선물 받은 느낌이다. 임지순은 1957년 국전에서 여인좌상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래, 국전입

상작의 범본으로서 인물 좌상 스타일을 유해시킨 장본인이기도 했다. 풍경 정물 인물 등 장르의 한계를 열어놓고 현란하고도 감성적인 색채감각으로 한 시대의 예술계를 품어냈던 화가는 조선대 미술대학에 25년간 재직하면서 오늘날 한국미술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굵직한 제자들을 길러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무안출발 일본여행

2017. 07. 07(금) ㅈ~우~욱~

2억원 영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A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대표이사 최금환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기타큐슈

일본국적 스타플라이어

※ 선착순 한정 특가

선박+항공
3일 특급수 298,000원 부터 (온천펜션)
4일 특급수·야마구치 398,000원 부터 (온천펜션+호텔)

항공 3일
복급수 3일 498,000원 부터 (온천펜션)
큐슈·야마구치 3일 598,000원 부터 (온천펜션+호텔)

항공 4일·5일
복급수 4일 598,000원 부터 (온천펜션+호텔)
큐슈·오사카 5일 698,000원 부터 (온천펜션+호텔)

자유여행 항공권 198,000원(TAX포함) 부터

포함 사항 : 왕복항공료, 항공TAX, 일본 현지 차량, 전 일정 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해외여행자보험
포함하지 않음 : 개인 여권 및 경비, 기사/가이드 경비(₩30,000/인)

삿포로

한국국적 대한항공

대한항공으로 무안에서 떠나는 북해도 낭만여행

4일 1,390,000원 부터
5일 1,499,000원 부터

자유여행 4일 799,000원 부터
(왕복항공료 및 비즈니스호텔 2박)

자유여행 5일 899,000원 부터
(왕복항공료 및 비즈니스호텔 2박)

포함 사항 : 왕복항공료, 항공TAX, 일본 현지 차량, 전 일정 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기사/가이드 경비, 해외여행자보험
포함하지 않음 : 개인 여권 및 경비, 상급차지

다낭

한국국적 티웨이항공

아름다운 해변의 백사장과 밤하늘의 낭만이 춤추는 베트남 다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친 美親 초!! 특가

5일 399,000원 부터
6일 399,000원 부터

상 품 특 전 : 투번강투어(목공예마을+도자기마을), ICE 커피 한잔, 열대 과일, 밤 마사지 60분(탑넬드), 노니바나 1개/인
포 함 사 항 : 왕복항공료, 호텔(2인1실), 차량, 열대프림 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여행자보험, 스포츠 마사지 1시간
포 함 사 항 : 기사/가이드 경비(\$50/인-5일, \$60/인-6일) ※선착, 이틀 당일 렌터카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등다2003-1호
공통조건 : 여행기간 : 1인 기준, 여행비용 : 1인 기준, 국내항공 5인만, 관광진흥법기금, 관광 및 무료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열차 / 전 지역 ✦ 상거 요금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계약서 기입 ✦ 예약시 계약서(세무서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고 하십시오. ✦ 경비업(호텔,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착순,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신청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